

논문 표절방지프로그램 검증 결과물 제출 안내

연구윤리 결여 등의 문제로 석·박사학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초래된 가운데 학위청구논문 제출 시 표절방지프로그램을 통한 사전 검사로 표절을 예방하고 질 높은 논문 작성을 위해 2015학년도 전기 학위청구 논문심사 대상자부터 표절 여부 검증 결과물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음

■ 시행 근거

- 교육부 대학원 질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중 논문 제출 시 “표절검사 결과 확인서”를 사전 제출토록 권장
- 사전검사를 통해 연구 윤리의식을 높여 논문표절을 예방하고 수준 높은 논문 작성을 지원

■ 표절방지프로그램 검증 시행

- 제출대상 : 석사·박사 학위논문 제출예정자
- 시행방법 : 학위청구논문심사 과정(석사 2회, 박사 3회) 중 표절검사 1회 이상 시행
- 제출자료

가. 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준수확인서(본교 양식)

나. 학위청구논문 표절검사 결과확인서(본교 양식, 지도교수 작성)

다. 논문 표절방지프로그램 검사결과 보고서

(카피킬러 “표절검사 결과확인서” 또는 턴잇인 “디지털수령증 및 유사도 %가 표기된 페이지”)

※ 한글로 된 학위논문은 Copykiller, 외국어(영어 등) 학위논문은 Turnitin을 반드시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검증 (프로그램 중복검증 가능)

- 제출방법 :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시 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준수확인서, 학위청구논문 표절검사 결과확인서, 논문표절방지 프로그램 검사결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
- 유의사항 : 표절방지프로그램 검사 결과 논문의 유사도는 15% 이하로 유지
 - 가. 표절검사 결과확인서의 지도교수 의견 작성 시 유사도에 대한 해당 사유를 철저하게 검증하여 작성

나. 유사도가 15% 이상인 경우, 논문의 심사위원장 및 심사위원은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논문 심사요지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논문의 통과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

○ 참고사항

- 표절방지프로그램의 검사결과(유사도의 정도)만으로 표절 여부가 단정 지어지는 것은 아니며 전문 용어, 상용적인 문구의 사용 등에 따라 유사도는 높아질 수 있음
-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은 표절이 의심되는 부분에 대하여 상세심사를 하며,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하여 논문심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제출

■ 표절방지프로그램 점검결과 유사도 판단기준 [예시]

- ① 양호수준 : 0% 이상 ~ 10% 미만
- ② 유의수준 : 10% 이상 ~ 15% 미만
- ③ 주의수준 : 15% 이상 ~ 20% 미만
- ④ 위험수준 : 20% 이상

※ 유사도 검사 결과가 과도하게 높고 심사위원의 소견이 미흡한 경우,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졸업여부를 심의·결정할 수 있음

※ 학위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개의 논문 또는 저서로 학술지 등에 게재하는 경우 양쪽 연구의 서문이나 지면에 이 같은 사실을 출처 및 인용표시

■ 표절판단 기준 [참고사항]

○ 한국학술단체 총연합회(2010.1.1.)

- ①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판된 타인의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사용 한 경우
- ②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판된 타인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바꾸어 사용한 경우
- ③ 연구계획서, 제안서, 강연 자료 등과 같은 타인의 미출판물에 포함된 핵심 아이디어나 문장, 표, 그림 등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사용한 경우

○ 교육인적자원부, 한국학술진흥재단 정책연구보고서(2007)

- ① 주요 단어를 중심으로 여섯단어 이상의 연쇄적인 표현이 남의 것과 일치하는데도 출처표시 없이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
- ②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를 이루는 주요 내용을 다른사람의 저작물에서 말 바꾸기

하여 쓸 경우

- ③ 출처를 표시했다 해도 인용한 양 또는 내용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 저작자의 고유한 또는 새로운 학술적 가치로 인정받기 어려운 자기표절, 짜깁기, 말바꾸기, 중복게재나 기여 없는 저자표시 등도 표절로 판정